

더 크게 맞붙는 美-中... 선택 기로에 선 삼성-SK

미. "화웨이에 반도체 팔지 말라" 중에 파운드리 팔던 대만 TSMC 제재 화웨이와 거래하던 한국기업들 '화들짝'

지난해 반도체 보릿고개를 넘은 가운데 점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또 다시 G2발(發) 경제전쟁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길을 막아주며 지난해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에도 반등 기미를 나타냈던 국내 반도체업체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될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18일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사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을 막는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이어 '제2의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15일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제3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5월 미국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로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비롯한 114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제한을 시행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강

력한 제재 카드를 꺼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에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제조에 필요한 미국 부품 공급 길이 사실상 끊겼다. 퀄컴 등으로부터 공급받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물론이고 구글의 운영체제(OS) 사용에도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발빠르게 자체 개발 칩과 OS를 활용하며 화웨이 체제가 굳건함을 과시했다. 미국 기술 기반의 반도체는 대만의 파운드리업체인 'TSMC'를 통해 위탁생산해 공급받아 고비를 넘겼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화웨이가 스마트폰이나 통신장비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유지하고 오히려 안방인 중국에서 세를 더 키우면서 승기는 화웨이로 기울는 듯했다.

미국의 이번 2차 제재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도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TSMC에 1차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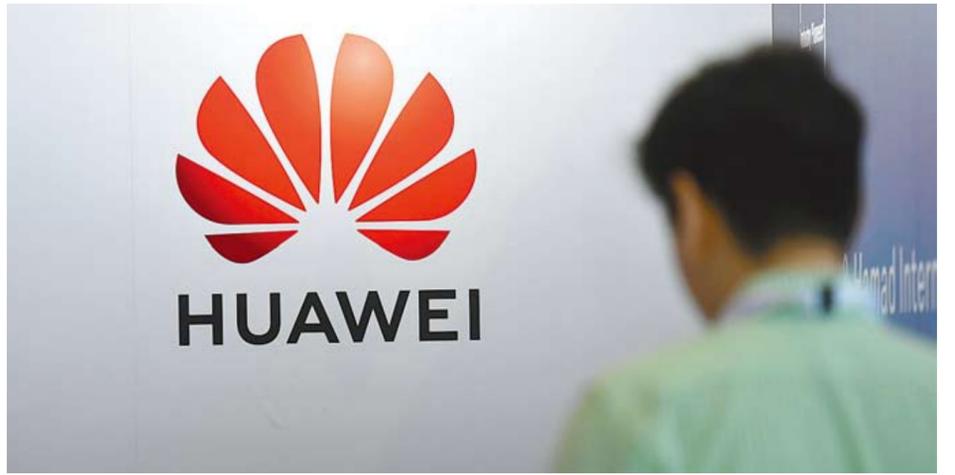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만들

것이라면서 여기에 애플이나 퀄컴, 시스코, 보잉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중 간 1차 무역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줄만 알았던 국내 기업들은 또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뜰이나 코로나19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전보다 더 격한 양상으로 치닫는 양국의 경제 제재에 불확실성은 배가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양국의 경제 제재가 어떤 방향으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상황이 혼란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큰 변수가 추가됐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기업활동의 최대 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당장 수요 회복기를 맞아 분주한 국내 메모리 반도체업체에도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우선은 TSMC가 타깃이 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화웨이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사정이라 향후 반도체 공급망의 폐쇄 범위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공급망 전반을 막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선 1차 제재에서 화웨이가 나뉠 돌파구를 마련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제재가 화웨이의 미국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공급 뿐만 아니라 화웨이로 통하는 전 세



사진=시장경제DB

계 부품망 전체를 막겠다는 시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TSMC가 제공하는 반도체 위탁생산을 우선적으로 방해하고 이후 메모리 반도체와 5G칩 공급에도 차질을 준다면 삼성과 SK도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

화웨이는 이미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의 상위 5개 주요 거래처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삼성전자는 기존에 30%를

넘었던 중국발 매출 비중이 20% 증대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로 제재 범위가 좁혀지면서 조만간 화웨이(向)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업체들에 메모리 공급 비중이 높았던 SK하이닉스도 이번 미중 간 2차 무역전쟁에 누구보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최근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IT 투자에 힘입어 중국 서버업체들의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며 중국은 SK하이닉스의 매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화웨이는 단연 손에 꼽는 주요 고객사로 5G 도입 등으로 앞으로의 거래 전망도 밝았던 것이 현실이다.

당장은 양사 모두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에도 점진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던 국내 반도체업체에 새로운 변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기존의 전략 방향에 수정이 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정소희 기자 soy08@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A YOUNG LEADER IN SHOT ON A REBEL CUBA LEICA



SOFORT INSTANT CAMERA. THE LEICA MADE FOR FUN. LEICA STORE BOSTON 74 ARLINGTON ST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CHE 체 게바라
Client: LEICA STORE BOSTON 라이카 스토어 보스턴
Agency: ARNOLD WORLDWIDE Boston
Product: CAMERAS 카메라

Copy: A Young rebel Leader in Cuba
Shot on a LEICA
쿠바의 젊은 혁명가
라이카 카메라로 담다

미 TSMC 제재, 한국 피해는 '제한적'

TSMC, 애플·AMD 등 미국서 판로 모색 中, 대체재로 SMIC 투자... 단기간엔 불가 삼성-SK, 제재 우려... 직접 영향은 적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반도체 수출 금지 규정 개정을 의식해 화웨이에 대한 신규 부품 공급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미국의 이번 규제에 앞서 진행된 화웨이의 반도체 칩 주문은 오는 9월 중순 이전까지 예정대로 출하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들어오는 수주 물량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미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AP가 TSMC에서 생산될 경우, TSMC는 9월부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못하게 된다.

다급해진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에 거액의 투자금을 몰아주며 사실상 국영기업화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중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궤지·中芯國際)는 최근 공고를 통해 국가집적회로(IC)산업투자 펀드(약칭 대기금)와 상하이집적회로펀

드로부터 총 22억5천만 달러(약 2조7천700억원)의 투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기금과 상하이집적회로산업펀드는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로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 돈을 대는 셈이다.

SMIC의 생산 거점인 상하이 반도체 공장에서는 현재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웨이퍼가 월 6천장씩 생산되고 있는데 세계 1·2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나 삼성전자와의 기술력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TSMC는 이미 7nm 수준을 넘어 회로 선포가 더 좁은 5nm급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MIC의 적극적 생산능력 확대가 예상되지만, 1분기 글로벌 매출 점유율이 4.5%에 불과하고 현재 14나노 제품만을 양산하고 있어 5나노 생산을 준비중인 TSMC를 단기에 대체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조



사진=픽사베이

치로 반도체 자급 확대와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KB증권은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반적인 비메모리 투자 전략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감소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감소와 제재 확대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재 대상은 TSMC의 화웨이 향 파운드리 제품(하이실리콘 AP)이고 화웨이의 스마트 폰 축소 분은 중국 시장에서는 중화권 스마트 폰 제조사가,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동욱 기자 east@newdailybiz.co.kr

네이버·카카오, "화웨이 안쓰고 있다"

한중 보안 문제도 수면 위로 "테스트 했으나 구매계획 없어"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당시 판교사옥 내 네트워크 테스트용으로 관련 장비를 구매·이용한 적은 있으나, 이후 화웨이 장비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술에 발맞춰 당시 테스트용으로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수급해 솔루션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몇해전 중국 화웨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수천대를 자사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분산 설치했

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건립될 제2 데이터센터에도 화웨이 관련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 완공한 강원도 춘천의 첫번째 데이터센터 '각(閣)'에 이어 오는 2023년까지 5400여억원을 들여 두번째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세종'은 29만 3697㎡ 부지로, 춘천 데이터센터 보다 6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역시 2018년 테스트용으로 화웨이 서버 및 장비 일부를 구매할 바 있지만, 향후 수급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2018년 테스트 당시 IDC를 네이버처럼 자체 운영하지 않고 있던 터라 활용도가 크지는 않

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의 동시에 화웨이 장비를 테스트용으로 구매한 배경으로 이듬해 진행된 '5G 상용화'를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다양한 환경에서 네트워크 실험을 하고자 관련 장비를 일부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화웨이의 장비 보안 공통평가 준(CC) 발급 등 보안 이슈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 한 국내 ICT 기업들의 화웨이 장비 수급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화웨이 5G 장비의 보안 공통평가 기준(CC) 인증이 지속해 늦어지고 있다.

전성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